내신까지 'AI 커닝' 비상… 교육부, '수능급 감독' 도입

금속탐지기 검사·와이파이 차단
적발 시 당일 모든 과목 0점 처리
교원·학부모 "2학기 기말 대책 마련"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27학년도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경희대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넘어 중·고교 내신 평가로 번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감독교사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단체와 수험생들도 공정한 시험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신에도 수능 수준의 감독·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고충 제보 결과'를 발표하고, "수능·내신 등 평가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원단체 감독 부담…"전면 손질을"**

전교조는 "AI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감독교사의 업무와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일부 감독교사는 새벽 4시에 출근해 12시간 넘게 근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독 업무를 하루 2교시 이내로 제한하고 교시당 감독 인력을 3명으로 늘리는 한편, 감독 수당 현실화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국무총리 직속 '국가시험보안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전문 인력과 장비, 법령·예산을 갖춘 전담 기구를 두고 수능뿐 아니라 대학 편입시험과 중·고교 내신 평가에도 'AI 부정행위 제로존'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 **학부모·학생도 '내신 공정성' 촉구**

학교 현장에서도 내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 지역 학부모·교육단체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교 정기시험의 AI·첨단기기 부정행위 실태를 점검하고, 2학기 기말고사부터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독 인력과 예산 지원 및 관련 자료 공개도 요청했다.

수험생 단체인 '2027 수능 대책 요구 연대'는 지난 23일 "학교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에서 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공통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다음 달 입시 공정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도 예고했다.

◆ **교육청들, '금속탐지기'로 대응**

시도교육청들이 내신 부정행위 대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3 학교 239곳 중 200곳이 23~27일 시험을 치르고 있어, 우선 금속탐지기 활용을 도입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 전수검사를 추진한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속탐지기를 최대한 확보해 학교에 지원하고, 검사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수능에 사용한 금속탐지기 324대를 도내 학교에 배포했다.

◆ **교육부 "적발 땐 당일 전 과목 0점"**

교육부도 24일 '중등학교 내신평가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2학기 기말고사부터 우선 적용하고, 중학교도 이를 참고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수거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특히 입실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 당일 학교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복도 감독관은 통신 신호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징계 수위도 높인다. 부정행위 적발 시 기존 해당 과목만 0점 처리하던 기준을 바꿔 당일 모든 과목을 0점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금속탐지기 도입 등 긴급 조치가 우선 시행됐지만, 일회성 대응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기술 변화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예방·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신도시 어린이집, 영아반만 운영 가능

교육부, 유아반 운영 일시 중단 허용
국공립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확대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영아반 보육 수요가 급격히 늘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유아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보육 수요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아반 입소 대기가 길어지는 지역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등 취약보육 4개 유형 중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했다. 개정 이후에는 시간제보육이 추가돼 총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제공하면 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 수요 조사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예외다. 이 기준은 시행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새로 선정하거나 재선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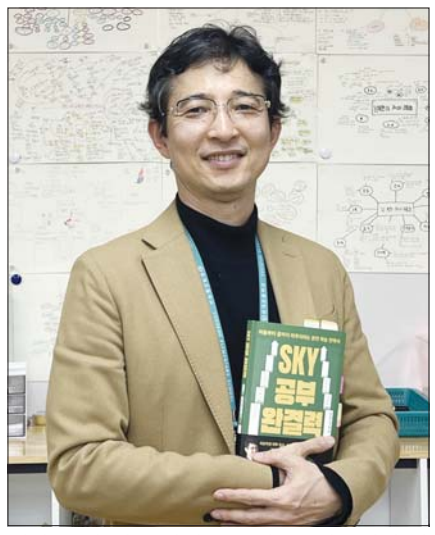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겨울방학 동안 한 가지 습관 만들어보길"

인터뷰

김 선 호 교사

공부 경쟁력 출발점 '끝까지 해내는 힘'
자기 수준 맞는 분량 끝내는 경험 축적
작은 성취 반복되면 학습 지속력 생겨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유석초등학교에서 만난 'SKY 공부 완결력' 저자 김선호 교사. /김수정 기자

"완결력의 핵심은 작은 것을 확실히 끝맺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공부는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김선호 교사의 생각은 다르다. 20년 가까이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 교사는 최근 'SKY 공부 완결력'을 펴냈다. 학년말과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 교사는 공부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끝까지 해내는 힘'을 강조한다.

〈메트로신문〉은 책의 저자인 김 교사를 만나 공부 완결력에 주목한 이유와 초등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원칙 등을 들어봤다.

◆ **'많이'보다 '끝까지'**

김 교사가 완결력에 주목한 계기는 교실에서 만난 한 학생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은 이 학생은 학업과 학생자치, 발표회 준비를 병행하면서도 하루 30분 남짓 악기 연습을 이어왔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악보를 매일 네 마디씩 연습해 6년간 쌓아온 결과였다. 김 교사는 적은 분량을 꾸준히 완수한 경험이 연주 실력뿐 아니라 공부와 다른 활동에서도 주어진 일을 해내는 힘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그가 말하는 완결력은 오래 앉아 있거나 많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다. 시작점과 마침점을 정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분량을 끝내는 경험을 쌓는 것이다. 하루에 정한 목표를 마치는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서 학습을 이어갈 힘도 생긴다는 설명이다.

◆ **선행 대신 '반 발짝'**

김 교사는 학생의 현재 수준보다 반 발짝 앞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학의 '비계 설정'처럼 해낼 수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5학년 학생이라도 4학년의 개념이 부족하다면 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학년이나 주변 진도에 맞추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스스로 마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처음부터 공부를 알아서 하라고 맡기기보다 하루 분량을 정하고 실천 여부를 확인하며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

◆ **AI 다룰 힘도 '독서'에서**

김 교사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학습 습관은 독서다. 김 교사는 "최대한 빨리 하루 30분 독서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책을 통해 쌓은 어휘와 배경지식이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긴 글의 흐름을 따라가는 바탕이 된다는 게 교직 생활에서 얻은 관찰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독서는 중요하다. AI에 무엇을 질문하고 답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용자의 어휘력과 배경지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완결하는 습관이 지속되려면 학교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독서나 한자 교육 등을 담임교사 재량에만 맡기기보다 학교가 지속할 활동을 정해 초등 6년 동안 이어가야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입시 너머 '자기효능감'**

김 교사가 말하는 완결력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 진학이 아니다. 작은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경험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을 키우고, 그 태도를 공부 밖으로 확장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책에는 이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완결력의 심리적 기반과 과목별 학습 습관, 부모의 역할 등을 담았다.

겨울방학을 앞둔 학부모에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기보다 한 가지 습관을 정해 꾸준히 이어가라고 조언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방학 동안 학습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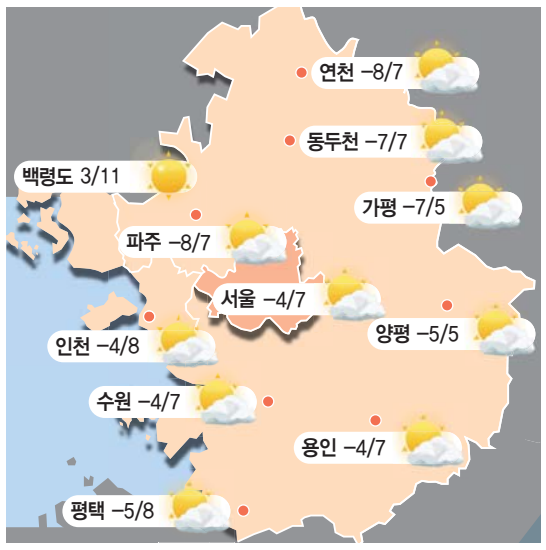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22 | 해짐 / 17:16

11월 25일(水) 음력 : 10월 17일

수도권 날씨 -4~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홍콩 방송사, 에이티즈 안무 표절 의혹…"바꾸려는 정성조차 없다"

▲佛마크롱, 대선 5개월 앞두고 '재정 황금률' 헌법 명문화 검토 /사진 뉴시스

▲EU, 일본산 전기차 우대 대상서 제외…日정부 "포함해 달라" 총력

▲젠슨 황, 엔비디아 복귀에도 내달 1일 하원 청문회 출석 예정

▲美 의회, 젠슨 황 복귀에 초당적 비판…"국가 안보 위협 해명해야"

▲美, '젠슨 황 불륜 상대' 설립한 메가스피드 제재…엔비디아 AI칩 수출 차단